

## 1. 표현의 빛깔

### (1) 시로 표현하기

시험에 **꼭!** 나오는 학습 활동

4~5쪽

01 ②    02 ④    03 ③    04 ②    05 ③    06 ①  
07 ⑤    08 ⑤    09 ⑤

- 01 이 시는 3음보의 민요적 율격이 나타나는 시이다.
- 02 반어를 사용하면 강한 인상을 주고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지만 그 자체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라고는 할 수 없다.
- 03 이 시에서 말하는 이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
- 04 모방시를 쓸 때에는 형식적인 특성은 모방하되, 자신의 개성이 드러나도록 써야 한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시이기 때문에 시의 주제나 내용이 원래 시의 주제나 내용과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05 이 시에서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서 역설의 방법을 사용하여 이별을 통한 영혼의 성숙을 강조하고 있다.
- 06 이 시에서는 꽃이 지는 것이 ‘열매’라는 결과로 이어지듯이, 이별은 슬프고 고통스럽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 영혼의 성숙을 이룰 수 있다고 노래하고 있다.
- 07 ‘결별’은 슬픔, 고통, 안타까움, 죽음, 이별 등의 단어를, ‘축복’은 기쁨, 행복, 희망 등의 단어를 떠올리게 한다.
- 08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는 역설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①은 도치법, ②는 반어법, ③은 운율, ④는 영탄법에 대한 설명이다.
- 09 이 시는 결별은 고통스럽고 힘든 체험이지만,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의 영혼을 성숙하게 하는 계기가 되므로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또!** 나오는 문제

6~7쪽

01 ③    02 ③    03 ⑤    04 ④    05 ④    06 반어, ‘당신’을 결코 잊을 수 없다. 07 ③    08 ③    09 ②    10 ①  
11 낙화를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결별을 통해 영혼의 성숙을 이룰 수 있다.

- 01 이 시에서는 반어를 통해 떠나간 ‘당신’에 대한 강한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다.
- 02 운율은 같은 소리나 단어, 일정한 글자 수의 반복,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 형성된다.
- 03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잊고’는 줄곧 잊지 못하고 있는 말하는 이의 진심이 드러난 시행이다.
- 04 ④는 현대 시조로 4음보의 율격이 드러난다.
- 05 이 시에서는 반어를 사용하여 떠난 ‘당신’에 대한 강한 그리움(주제)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06 ‘잊었노라’는 ‘당신’을 결코 잊을 수 없다는 것을 반어를 사용하여 표현한 것이다.
- 07 이 시의 말하는 이는 이별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격한 감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 08 3연에서는 낙화를 통해 지금이 이별의 때임을 인식하고 있다.
- 09 실제로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와 반대되는 말로 표현하는 방법은 반어이다. 이 시에서 반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 10 ‘꽃’은 사랑과 청춘을, ‘낙화’는 이별, 결별, 죽음, 자기희생을, ‘녹음’과 ‘열매’는 영혼의 성숙과 자기희생의 결과를 의미한다.
- 11 결별은 낙화를 의미하고, 축복은 낙화를 통한 열매를 의미한다. 시인은 꽃이 지고 열매를 맺듯이, 결별을 통해 영혼의 성숙을 이룰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튼튼! 만점 도전 문제

8~9쪽

- 01 ①    02 ②    03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잊고    04 ③  
 05 ②    06 ⑤    07 ③    08 ④    09 이별을 통한 영혼의  
 성숙    10 ②

- 01 이 시는 3음보의 규칙적인 끊어읽기를 보인다. ‘먼 훗날 ∨ 당신이 ∨ 찾으시면’으로 끊어 읽어야 한다.
- 02 말하는 이는 떠난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다.
- 03 말하는 이는 어제도 오늘도 줄곧 ‘당신’을 결코 잊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 04 ‘잊었노라’는 ‘당신’을 결코 잊을 수 없음을 반어를 사용하여 반대로 표현한 것이다.
- 05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는 겉으로는 모순되어 보이는 말에 삶의 진실을 담은 표현 방법인 역설이 사용된 표현이다.
- 06 이 시에서는 ‘뒷모습, 지다, 낙화, 결별, 죽는다, 헤어지자.’ 등의 하강적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하여 말하는 이의 애상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07 ‘가을’은 꽃이 지고 열매를 맺는 성숙의 계절을 의미한다.
- 08 그림 그린 듯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는 것은 시각적 심상에 해당한다.
- 09 이별은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이별을 통해 영혼의 성숙을 이룰 수 있다.
- 10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은 역설을 사용하여 이별을 통한 영혼의 성숙이라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운수 좋은 날’은 김 침지의 아내가 죽은 결말을 통해 반어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험에 꼭! 나오는 서술형

10쪽

- 01 잊었노라    02 3음보의 규칙적인 율격, 같거나 비슷한 글자 수의 반복,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등    03 잊었노라, 겉으로는 ‘당신’을 잊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결코 ‘당신’을 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04 말하는 이는 ‘당신’과 헤어진 상황으로 ‘당신’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고 있다.    05 ㉔: 사랑과 이별, ㉕: 영혼의 성숙(내면적 성장)    06 결별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의 영혼을 성숙하게 하는 계기가 되므로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    07 참신하고 인상적인 느낌을 준다.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더욱 강조한다. 등
- 04 (가)의 말하는 이는 사랑하는 ‘당신’과 이별한 상황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 ‘당신’을 잊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을 것이다.
- 06 꽃이 지고 무성한 녹음을 거쳐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하는 이는 결별 또한 더 큰 성숙이나 만남을 위한 헤어짐이기 때문에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다.

(2) 이야기로 표현하기

시험에 꼭! 나오는 학습 활동

13~14쪽

- 01 ③    02 ①    03 ⑤    04 ①    05 ④    06 ①  
07 ③    08 ③

- 01 부자는 '양반 매매 증서'의 내용을 듣고 양반이 되기를 포기한다.
- 02 제시된 내용은 첫 번째 양반 증서의 내용으로, 양반이 체면을 지키기 위해 허례허식에 얽매어 있는 모습을 보여 준다.
- 03 소설에 나타난 당시의 사회는 엄격했던 신분 질서가 붕괴하기 시작한 시기이지만, 아직 계층의 구분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 04 양반의 아내는 자신이 진 빚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하고 비생산적인 양반의 모습과 허울뿐인 양반의 권위를 비판하고 있다.
- 05 부자는 부당한 특권을 누리며 횡포를 일삼는 부도덕한 양반의 모습이 도둑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에는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는 말투가 어울린다.
- 06 풍자는 부정적인 현상이나 모순 등을 빗대어 비웃으면서 비판하는 표현 방법인데, 이 소설에서는 양반의 모습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웃음을 유발하고 양반의 무능함과 부도덕함을 비판하고 있다.
- 07 현실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여 대상에 대해 호감과 연민을 느끼게 하는 것은 해학이다.
- 08 ㉠에서 사람들은 집으로 온 꿈을 보고 놀라고 있으므로 반갑게 맞아 주고 있다는 설명은 바르지 않다.

또! 나오는 문제

15~17쪽

- 01 ④    02 ③    03 ④    04 ①    05 양반은 가난해도 귀한 대접을 받고, 부자(평민)는 잘살아도 천한 대접을 받기 때문에 06 ④  
07 ①    08 ④    09 ②    10 양반 신분을 사고 팔 수 있었다. 등  
11 ②    12 ③    13 ⑤    14 ④    15 부자는 양반은 부당한 특권을 누리며 횡포를 일삼는 '도둑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양반이 되기를 포기했다.

- 01 '양반전'은 고전 소설, 한문 소설, 풍자 소설에 해당한다.
- 02 (나)의 부자의 말에서 양반은 가난해도 늘 귀한 대접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 03 (다)에서 양반은 '환곡을 갚느라고 이미 양반을 팔았다'고 말하고 있다. 양반을 팔았기 때문에 평민과 같은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 04 양반 아내는 자신이 진 빚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하고 비생산적인 양반과 허울뿐인 양반의 권위를 비판하고 있다.
- 05 (나)에서 부자는 '양반은 아무리 가난해도 늘 귀한 대접을 받고, 우리는 아무리 잘살아도 항상 천한 대접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다.
- 06 군수가 사람들이 양반 신분을 매매할 때마다 증서를 작성했는지는 드러나 있지 않다.
- 07 첫 번째 증서를 통해 겉치레와 형식적인 관념에만 얽매어 있는 양반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양반의 행동이 민첩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 08 첫 번째 양반 매매 증서에 부자가 양반 신분을 사려는 이유는 드러나 있지 않다.

09 '얼음 위에 박 밀듯이'는 막힘없이 유창하게 글을 외우는 모습을 빗대어 표현한 말이다.

10 '양반을 사고팔면서 증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를 통해 신분을 사고팔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1 부자는 증서의 내용을 듣고, 부당한 특권을 누리는 양반을 '도둑놈'이라 말하며 양반이 되기를 포기하고 있다.

12 (다)에서는 '벼슬을 아니 하고 시골에 묻혀 살더라도 모든 일을 제멋대로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13 ㉠은 지나치게 체면을 차리는 양반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속담은 '양반은 얼어 죽어도 결불은 안 쥘다. 양반은 죽어도 문자 쓴다. 양반은 안 먹어도 긴 트림, 양반은 죽을 먹어도 이를 썩신다. 양반은 물에 빠져도 개해엄은 안 한다.' 등이 있다.

14 코에 잣물을 들이붓는다는 것은, 양반이 양반이 아닌 평민들에게 부리는 횡포를 의미한다.

15 부자는 증서의 내용을 듣고 양반을 '도둑놈'이라 생각하고 있다.

**튼튼! 만점 도전 문제**

18~20쪽

01 ④    02 ①    03 ④    04 환곡을 갚느라고 이미 양반을 팔았으니, 이제는 이 마음의 부자가 양반입니다.    05 ①, ③    06 ⑤  
07 ②    08 ②    09 ③    10 ②    11 ③    12 ③  
13 첫 번째 증서에는 양반으로서 지켜야 할 덕목과 행실만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증서에는 양반으로서 누려야 할 특권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    14 ③, ④

01 부자는 친한 대접을 받는 것을 한탄하며 양반 신분을 사려고 하고 있다.

02 ㉠의 상황에는 '어쩔 도리가 없어 꼼짝 못한다'는 뜻의 '속수 무책'이 적절하다.

03 양반의 아내는 어려운 집안 사정을 해결하지 못하고 울고만 있는 양반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므로 부러워하는 말투는 어울리지 않는다.

04 양반은 병거지에 잠방이를 입고 길에 엎드려 자신을 낮추고 있는데, 이는 부자에게 양반 신분을 팔았기 때문이다.

05 병거지와 잠방이는 농사꾼이나 병졸, 하인들의 복장으로, 여기에서는 양반이 신분을 팔고 나서 평민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06 부도덕한 양반과 그런 양반을 선망의 대상으로 삼고 신분 상승을 노리는 평민 계급도 함께 비판하고 있다.

07 세수할 때는 주먹으로 비비지 말라고 하고 있다.

08 (나)에는 겉치레와 형식적인 관념에만 얽매어 있는 양반의 모습이 나열되어 있다.

09 작가는 무능하고 부도덕한 양반의 특권 의식과 위선을 아내, 부자의 입을 빌어 비판하고 있다.

- 10 이 글은 양반을 비웃으며 비판하는 풍자적 성격의 소설이다.
- 11 '수염이 대 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다.'는 배가 불러야 체면을 차릴 수 있다는 뜻으로 먹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속담이다. 나머지는 체면을 중시하는 양반의 모습을 빗댄 속담이다.
- 12 ㉠은 과거에 합격한 양반이 권력을 남용하여 돈을 모으는 것을 뜻한다.
- 13 ㉠은 과거에 합격한 양반이 권력을 남용하여 돈을 모으는 것을 뜻한다. 부자는 양반이 되면 누릴 수 있는 이익을 기대하였지만, 양반으로서 지켜야 할 덕목이 가득한 첫 번째 증서의 내용을 듣고 어처구니가 없어 한다.
- 14 이 작품은 당대 사회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을 뿐, 이상적인 모습이 드러난 것은 아니다. '도둑놈'은 양반을 바라보는 작가의 부정적인 인식이 단적으로 드러난 표현으로, 양반을 비판하는 말이다.

시험에 꼭! 나오는 서술형

21쪽

01 가난하여 해마다 관청의 환곡을 꾸어다 먹었는데 빚을 갚지 못하고 해마다 쌓여서 천 섬에 이르렀다. 02 소인, 환곡을 갚느라 양반 신분을 팔았기 때문에 03 '부자이면서도 재물을 아끼지 않으니 의로운 일이요, 남의 어려움을 도와주니 어진 일이요, 천한 것을 싫어하고 귀한 것을 바라니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칭찬하고 있다. 하지만, 작가는 이를 통해 부를 이용하여 양반 신분을 사려고 한 부자를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04 양반을 사고팔면서 증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소송의 꼬투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05 직접적인 비판보다 대상을 더욱 인상 깊게 비판하고, 웃음을 주면서도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갖게 한다. 06 무능하고 부도덕한 양반과, 양반을 선망의 대상으로 삼고 신분 상승을 노리는 평민 계급을 비판하였다. 07 조롱하는 말과 빈정거리는 말투를 통해 양반의 부정적인 면을 비판하고 있다. 08 부자는 양반이 신선 같다고 들었는데, 증서의 내용이 그렇지 않아(첫 번째 증서에는 지켜야 할 덕목과 행실만 나타나 있어서) 재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고, 따라서 부자에게 이익이 될 내용이 담기도록 문서를 고쳐 써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등 09 부자는 증서의 내용을 통해 양반은 부당한 특권을 누리며 횡포를 일삼는 '도둑놈'같은 부도덕한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양반이 되기를 포기한 것이다. 작가는 양반의 모순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 소설을 창작하였다. 등 10 증서에 쓰인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양반 신분을 빼앗길 수 있다. 증서에 쓰인 내용을 지켜야 양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11 문과에 통과하여 벼슬을 하면 권력을 남용하여 재물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을 '돈 자루'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12 신분을 이용하여 백성을 괴롭히고 횡포를 부리는 양반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등 13 ㉠은 현실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는 악정에 따른 휴대 전화 교체를 만남과 이별의 관계에 빗대어 비판하는 풍자의 방법이 나타난다. 풍자는 웃음을 유발하여 부정적인 현상이나 모순 등을 간접 비판한다. 등

02 양반은 양반 신분을 관 뒤 자신을 지칭할 때, 평민이 자신을 낮추어 부르는 '소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선택 학습\_활동 1

또또! 나오는 문제

23쪽

01 ④      02 나뭇잎이 벌레 먹어서 예쁘다      03 ④      04 ④

01 말하는 이는 벌레 먹은 나뭇잎을 관심과 애정 어린 태도로 바라보고 있다.

02 역설의 방법을 사용하면 참신하고 인상적인 느낌을 주고,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03 '귀족의 손'은 상처 없이 매끈한 나뭇잎을 뜻하고, 나머지는 벌레 구멍을 나타낸다.

04 나뭇잎이 자신을 희생하여 벌레를 먹고 살게 해 주는 것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삶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다.

**선택 학습\_활동 2**

**또또! 나오는 문제**

25~26쪽

01 ④    02 ①    03 ②    04 자기 집 가까이 다다르자, 아픈 아내가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05 ③    06 ①    07 설렁탕  
08 표면적으로는 돈을 많이 벌어서 '운수 좋은 날'이지만, 실제로는 아내가 죽은 가장 불행한 날임을 반어를 사용하여 표현한 것이다.    09 ③

01 이 소설은 3인칭 전지적 시점의 사실주의 소설로, 일제 강점기의 궁핍한 하층민의 비참한 삶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02 김 첨지는 집과 가까워지면 아내에 대한 걱정이 심화되어 걸음이 느려지고, 집과 멀어지면 걱정을 떨쳐 내어 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03 우울하고 어두운 분위기로 비극적 결말을 암시한다.

05 '인력거', '전차길', '육십 전'은 당시의 시대 상황을 드러내 주는 소재이다.

06 (가)에는 차삼과 김 첨지의 외모에 대한 묘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07 김 첨지가 아내가 먹고 싶어 하던 설렁탕을 사왔는데 아내는 이미 죽어 있는 상황으로, '설렁탕'은 상황의 비극성을 강조한다.

09 김 첨지는 비극적 결말을 예감하고 있을 뿐, 아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대단원 종합 문제**

27~30쪽

01 ③    02 ③    03 ②    04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05 3음보의 민요적 율격이 나타난다. 반어를 사용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등    06 ④    07 ①    08 잊었노라    09 ⑤  
10 양반이 가난하여 해마다 관청의 환곡을 꾸어다 먹었다는 것을 통해 당시에 환곡을 꾸어 주는 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반이 빚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 경제적으로 몰락하는 양반이 생겨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반 아내의 말을 통해 양반의 권위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 ①    12 ⑤    13 역설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결별을 축복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꽃이 지고 나서야 여름의 무성한 녹음과 가을의 열매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4 ③    15 ⑤    16 ③, ⑤  
17 ②    18 부지는 양반의 부당한 특권과 횡포에 대한 내용을 보고 양반이 되기를 포기하고 있다. 여기에는 양반을 바라보는 작가의 비판적 시각이 드러나 있다.

01 (가)에서 말하는 이는 '당신이 찾으시면'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을 뿐, '당신'을 만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지는 않다.

02 말하는 이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상황이다. 이에 어울리는 정서는 슬픔, 그리움, 애상, 안타까움 등이다. 억울함은 드러나 있지 않다.

03 (나)에서 반어법은 나타나지 않는다. ① 직유법, ③ 역설법, ④ 생략법, ⑤ 의인법

04 '나뭇잎이 벌레 먹어서 예쁘다'에 사용된 표현 방법은 역설이다. 이에 해당하는 시구는 (나)의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으로, 겉으로는 모순되거나 불합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삶의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 방법이다.

05 '먼 후일'은 3음보의 율격이 나타나며, 떠나간 임을 잊을 수 없는 마음을 반어를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06 대표적으로 (가)는 반어, (나)는 역설, (다)는 풍자를 사용하여 말하는 이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7 명령어는 나타나지 않는다.

08 '운수 좋은 날'에 드러난 표현 방법은 반어이다. 이에 해당하는 시구는 당신을 결코 잊지 못하는 마음을 반대로 표현한 '잊었노라'이다.

- 09 ㉔에서 양반의 아내는 무능력한 양반을 비판하고 있으므로, 긍정적 태도가 아닌 부정적 태도라고 할 수 있다
- 10 (다)에서 당시에 환곡을 꾸어 주는 제도가 있었다는 것, 경제적으로 몰락하는 양반이 생겨났다는 것, 양반의 권위가 점차 사라지고 있었다는 것 등을 알 수 있다.
- 11 반어는 실제로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대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 12 (라)에서 군수는 부자를 군자라고 칭찬하고 있다.
- 13 ‘결별’은 ‘낙화’를 의미하고, ‘축복’은 낙화를 통한 ‘열매’를 의미한다.
- 14 양반은 아무리 가난해도 늘 귀한 대접을 받고, 부자는 아무리 잘살아도 항상 천한 대접을 받기 때문에 부자는 양반이 되고 싶어 했다. (나)의 부자의 말에 그 이유가 잘 드러나 있다.
- 15 부자가 양반이 되고 싶어 한 것이지, 양반이 부자가 되려고 한 것은 아니다.
- 16 (나)와 <보기>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방법은 풍자로, 풍자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한다. ㉓은 역설에 대한 설명이다.
- 17 체면을 지키기 위한 겉치레에 얽매이는 것과 관련된 말은 ‘허례허식’이고, 아무 하는 일 없이 놀고먹기만 하는 것을 표현한 말은 ‘무위도식’이다
- 18 부자는 양반을 ‘도둑놈’이라 말하고 있다. 이는 양반을 바라보는 작가의 부정적 인식이 단적으로 드러난 말이다.

## 2. 읽고 쓰는 즐거움

### (1)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

시험에 꼭! 나오는 학습 활동

33~34쪽

01 ④    02 ②    03 ⑤    04 ②    05 ③    06 ⑤  
07 ④    08 ③

- 01 글쓰이는 3학년이 되면서 좋아하는 특별 활동으로 되도록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 반인 도서반을 선택했고, 활동의 첫날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 읽었다.
- 02 작가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 03 글쓰이는 특별하지 않은 특별 활동 시간에 읽은 특별한 박지원의 소설이 지금 자신이 소설을 쓰게 한 이유라고 말하고 있다.
- 04 읽기가 책을 읽는 사람들의 직업을 결정해준다는 내용이나, 책을 통해 얻게 되는 지식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 05 책 읽기는 자신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다.
- 06 <맛있는 책, 일생의 보약>에서는 박지원의 책이 글쓰이가 소설가가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하고 있을 뿐, 꼭 도서반에 가입해야 소설가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07 책이나 글을 많이 읽는 사람은 수행 평가와 같은 목적 때문에 읽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다양한 책을 읽는다.
- 08 글짓기 대회는 글을 쓰는 대회이므로 글 읽기를 생활화하는 독서 활동과 거리가 멀다.



또또! 나오는 문제

35~36쪽

01 ㉓ 02 ㉔ 03 ㉒ 04 책을 읽으면서 정신세계가 한층 더 넓어지고 수준이 높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05 ㉕  
06 ㉓ 07 ㉒, ㉕ 08 글쓴이는 박지원의 책이 자신이 소설가가 된 계기라고 생각한다. 09 ㉑

01 글쓴이는 '되도록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 특별 활동반을 하고 싶었고, 그것이 도서반이었다.

02 (나)와 (다)의 내용을 보면 무협지는 읽고 나면 주인공 이름 말고는 기억에 남는 게 없는데, 박지원의 소설은 주인공과 관련하여 계속 생각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다.

03 사람들이 책을 잘 보지 않기 때문에 책 표지가 사람의 손을 거의 거치지 않아서 깨끗한 것이다.

04 (다)에 고전을 읽으면서 정신세계가 보약을 먹은 듯이 한층 더 넓어지고 수준이 높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하였다.

05 (가)에서는 글을 '다리'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고, 글쓴이의 인생을 바꾼 책이 '박지원의 책'임이 나타나 있다. '특별하지 않은 특별 활동 시간'에 역설이 사용되었다. (나)의 마지막 문장에는 도치법이 사용되었다. 반어법은 나타나지 않는다.

06 글쓴이가 소설가가 되는 데 고전이 영향을 미치긴 하였지만, 당시에 직업을 결정했다고 볼 수는 없다.

07 인간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09 책을 빌렸는지 구매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책을 평소에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튼튼! 만점 도전 문제

37~38쪽

01 ㉓ 02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 특별 활동반에 들어가고 싶어서  
03 ㉓ 04 ㉒ 05 ㉓ 06 ㉔ 07 ㉕ 08 ㉕  
09 ㉕

01 글쓴이는 되도록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 특별 활동반을 하기를 바랐다.

02 글쓴이는 2학년 특별 활동반 활동의 경험을 비추어 3학년 때에는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 특별 활동을 선택하였다.

03 '최초의 고전'은 크게 보면 '박지원의 책'이지만, 그 속의 소설로 본다면 '허생전'이라고 볼 수 있다.

04 한두 번 씹으면 단맛이 다 빠져버리는 것은 무협지의 특징이다.

05 책 읽기는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자기 생각을 확장하는 것이다.

06 숙제 때문에만 책을 읽는 것은 읽기의 생활화 방법과는 거리가 멀다.

07 책 구입 방법을 반드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08 다른 독서 모임의 활동 상황을 독서 모임 소식지에 담을 필요는 없다.

09 <낙화>는 꽃이 지는 모습을 통해 이별의 의미를 형상화한 시로, 이별이나 죽음 역시 참된 의미를 알고 받아들일 때 아를 다울 수 있다는 깨달음을 말하고 있다.

시험에 꼭! 나오는 서술형

39쪽

01 되도록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 활동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02 사람의 손을 거의 거치지 않아 책 표지가 깨끗했다. 수십 권의 연속물 가운데 한 권이었다. 고전에 해당하는 책이다. 등 03 한문 문장을 번역한 예스러운 문체 04 박지원의 책 05 (글쓴이가) 소설가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 06 읽기는 인간다운 삶을 살고 드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길을 보여 준다. 읽기는 진정한 인간으로 나아가는 통로이다.



(2) 다양한 표현 활용하여 글 쓰기

시험에 꼭! 나오는 학습 활동

41~42쪽

- 01 ①    02 ②    03 ②    04 ④    05 ①, ③    06 ④  
07 ④    08 ②

- 01 '숨이 턱에 닿다'는 '몹시 숨이 차다.'라는 의미이다.
- 02 '말만 앞세우다'는 '말만 앞질러 하고 실천은 하지 않는다.'의 의미이다.
- 03 '급히 먹는 밥이 목이 멘다.'는 예로부터 전해 오는, 짧으면서도 교훈을 담고 있는 말인 속담으로, 너무 급히 서둘러 일을 하면 잘못하고 실패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04 싫은 것을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은 '울며 겨자 먹기'이다.
- 05 바뀐 제목을 통해 독자의 관심을 끌고, 글쓴이가 등산을 하며 얻은 깨달은 점을 효과적으로 드러내 준다.
- 06 '마음이 언짢거나 유감의 뜻을 나타내다.'라는 뜻의 관용 표현을 사용하여 현지의 태도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아버지의 심리를 더욱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07 ④는 역설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에는 역설이 사용되지 않았다.
- 08 대상에 대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글은 설명문이다. 현지가 쓴 글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수필이다.

또또! 나오는 문제

43~44쪽

- 01 ⑤    02 ④    03 ①    04 ④    05 내 생각이나 느낌을 좀 더 인상 깊게 표현할 수 있다.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06 ②    07 ④    08 ③    09 ⑤

- 01 '운동도 하고 글감도 찾고'는 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이상의 이익을 얻는 상황에 해당한다. 이에 해당하는 속담은 '뽕 먹고 알 먹고', '입도 보고 뽕도 따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등이 있다. '무른 땅에 말뚝 박기'는 매우 쉬운 일을 의미한다.
- 02 ㉠은 속담, ㉡은 격언이나 명언, ㉢은 관용 표현이다. '코를 납작하게 만들다'는 관용 표현, '울며 겨자 먹기', '서당 개 삼 년에 풍월을 읊는다.'는 속담,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격언이나 명언의 예에 해당한다.
- 03 ①은 속담 그대로의 표현이다. ②는 '모난 돌이 정 맞는다.', ③은 '낮 놓고 그자도 모른다.' ④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⑤는 '서당 개 삼 년에 풍월을 읊는다.'의 변형이다.
- 04 제시된 설명에 해당하는 속담은 '서당 개 삼 년에 풍월을 읊는다.'이다.
- 05 글을 쓸 때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면 생각이나 느낌을 좀 더 인상 깊게 표현할 수 있고,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 06 '울며 겨자 먹기'가 '어쩔 수 없이'보다 효과적이므로 고칠 필요가 없다.
- 07 급하게 산에 오르다가 숨이 찬 현지의 상황에 어울리는 관용 표현은 '숨이 턱에 닿다.'이다.
- 08 '급히 먹는 밥이 목이 멘다.'는 너무 급히 서둘러 일을 하면 잘못하고 실패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09 현지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휴식의 중요성'이다. 반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튼튼! 만점 도전 문제

45~46쪽

01 ㉓ 02 ㉓ 03 ㉑ 04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05 ㉑ 06 ㉓ 07 ㉔ 08 ㉓ 09 ㉔ 10 기존의 명언을 재해석하여 참신한 표현을 만들어서, 휴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01 관용 표현은 둘 이상의 단어가 합쳐져 원래의 뜻과 전혀 다른 새로운 뜻으로 굳어져서 쓰이는 표현이다.
- 02 ㉑에는 싫은 일을 억지로 마치듯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울며 겨자 먹기'가 적절하다.
- 03 ㉔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속담으로 참신한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다.
- 05 '머리가 가볍다.'는 상쾌하여 마음이나 기분이 거뜬하다는 뜻이므로, 산에 올라 상쾌한 기분을 표현하기에 적절하다.
- 06 글을 쓸 때 다양한 표현을 활용하면 생각이나 느낌을 좀 더 인상 깊게 표현할 수 있고,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또한 글을 통해 드러내고 싶은 의도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 07 글쓴이는 (라)에서 '정상에 올라 탁 트인 풍경을 바라보니 시험공부 때문에 쌓인 스트레스가 풀리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았다.'고 말하고 있다.
- 08 글의 주제는 (마)에서 찾을 수 있다. 현지는 '아버지와 등산을 하면서 적당한 휴식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다.
- 09 예로부터 전해 오는, 짧으면서도 교훈을 담고 있는 말은 속담이다. ㉑, ㉔, ㉕은 속담, ㉒, ㉕은 관용 표현, ㉓, ㉔은 명언이다.

시험에 꼭! 나오는 서술형

47쪽

01 ㉔: 예로부터 전해 오는, 짧으면서도 교훈을 담고 있는 말. ㉕: 오랜 역사적 생활 체험을 통해 이루어진 인생의 교훈이나 경계 등을 간결하게 표현한 짧은 글. ㉓: 둘 이상의 단어가 합쳐져 원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뜻으로 굳어져서 쓰이는 표현 02 꿩 먹고 알 먹기 03 쉬어라, 좀 더 쉬어라, 충분히 쉬고 공부하라. 04 '울며 겨자 먹기'는 싫은 일을 마치듯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여기에서는 마치듯해 아버지를 따라나선 현지의 심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5 현지의 태도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아버지의 심리를 더욱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해 준다. 06 누워서 떡 먹기(식은 죽 먹기), 산에 오르는 일을 쉽게 여긴 현지의 태도를 간결하고 인상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07 급히 먹는 밥이 목이 멘다. 08 적당한 휴식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 03 기존의 명언을 재해석하여 참신하게 표현하였다.

선택 학습\_활동 1

또또! 나오는 문제

48쪽

01 ㉔ 02 ㉕

- 01 비유적 표현과 예시가 나타나는 것은 (나)이다.
- 02 (나)에서는 내복을 입어서 겨울철 난방 에너지를 절감하고자 주장하고 있다.

대단원 종합 문제

49~52쪽

01 ㉑ 02 ㉕ 03 ㉔ 04 글쓴이는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독자는 글쓴이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05 ㉑ 06 ㉑ 07 보약, 침표 08 ㉑ 09 ㉔은 명언으로 '완전한 건강이란 육체와 정신이 함께 건강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글에서는 정상에 오른 현지의 상쾌한 기분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10 ㉓ 11 (마) 12 ㉓ 13 ㉔  
14 ㉔ 15 ㉕ 16 ㉓ 17 ㉔ 18 적당한 휴식의 필요성 (중요성) 19 ㉓

- 01 (가), (나) 모두 수필로,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얻은 깨달음이 나타나 있다.
- 02 글쓴이는 '아이들이 거의 손을 대지 않는 책 가운데 하나를 꺼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아이들이 거의 손을 대지 않았던 이유는 한자로 제목이 써어 있었기 때문이다.
- 03 ㉔에서 아버지는 '나'의 태도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어울리는 표현은 '혀를 차다'이다. '눈을 의심하다.'는 '잘못 보지 않았나 하여 믿지 않고 이상하게 생각하다.'의 의미를 가진 관용 표현이다.
- 04 독자의 입장에서는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글쓴이의 입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 05 고전의 단점은 나타나 있지 않다.
- 06 주인공의 이름만 기억에 남는 것은 무협지의 특징이다.
- 07 정신세계를 성장하게 하는 책의 가치를 '보약'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고, 휴식은 '침표'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08 후련했던 순간을 '씻은 듯이'라는 관용 표현을 활용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진이 빠지다.'는 '실망해서 의욕을 상실하거나 힘을 다 써서 기진맥진하다'는 뜻으로 부정적인 느낌을 준다.

- 09 ㉠은 '완전한 건강이란 육체와 정신이 함께 건강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임'을 표현한 명언이다. 이 글에서는 정상에 오른 현지의 상쾌한 기분을 표현하고 있다.
- 10 책을 많이 읽은 것을 자랑하는 것은 책임기의 가치와 거리가 멀다.
- 11 (가)에서 글쓴이는 박지원의 작품들을 반복해서 읽었다. 한 작가의 작품들을 연결해서 읽는 방법이 소개된 (마)와 가장 관련 깊다.
- 12 '책 속에 길이 있다.'의 '길'은 사람이 삶을 살아가거나 사회가 발전해 가는 데에 지향하는 방향, 지침, 목적이나 전문 분야를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③이다.
- 13 읽기를 생활화하려면 자기 수준에 맞고, 흥미가 있는 분야의 책 위주로 많이 읽는 것이 좋다.
- 14 공자가 주역을 즐겨 읽어 책의 가죽끈이 세 번이나 끊어졌다는 뜻으로 책을 열심히 읽음을 이르는 말인 '위편삼절'이 어울린다.
- 15 (가)와 (바)는 수필의 끝부분으로 글의 주제가 드러나 있다.
- 16 '누워서 떡 먹기'는 산에 오르는 일을 쉽게 여긴 현지의 태도를 간결하고 인상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 17 '씻은 듯이' '이주 깨끗하게'라는 뜻의 관용 표현으로, 정상에 오른 순간 현지가 느낀 후련함을 더욱 구체적이고 실감나게 나타내고 있다.
- 18 ㉠은 유명한 사람의 명언을 활용하여 표현함으로써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끌 뿐 아니라 적당한 휴식의 필요성을 강조하려는 현지의 의도를 잘 드러내 주고 있다.
- 19 글에 나타난 대상에 대한 설명이 모두 객관적 사실인지 살펴 봐야 할 글은 설명문이다.

SPEED 핵심 정리

54~57쪽

- 01 반복, 정서, 주제, 반대, 강조, 모순, 강조, 그리움 02 나 03 3, 행, 문장 구조, 음보율, 잊었노라 04 이별 05 잊었노라, 강조, 주제, 애절한 06 늦은 봄 07 열매, 사랑, 이별, 성숙 08 결별, 축복, 성숙, 강조 09 하강적 10 양반, 풍자, 양반 아내, 비판, 부자, 군수 11 소인, 환곡, 양반 신분 12 경제적, 양반, 평민, 신분 13 허례허식, 양반, 무위도식, 특권, 특권, 양반 14 도둑놈, 도둑, 비판 15 희화화, 비판, 비판, 통찰력 16 경험, 깨달음 17 (1) 도서반 (2) 도서반 (3) 고전, 고전 (4) 소설가 (5) 보약, 정신세계 18 정신문화, 통로, 가치 19 (1) ㉠, ㉡, ㉢ (2) ㉠, ㉡ 20 보석, 보약 21 무협지, 품위, 정신세계, 숨결, 뿌듯함 22 도서반, 허생전, 무협지, 맛, 책 23 거울, 성찰, 확장, 쇄신, 의미, 이타주의 24 속담, 격언, 명언, 관용 표현 25 인상, 흥미, 관심, 의도 26 (1) 서당, 삼 (2) 거자 (3) 밥 (4) 떡 27 (1) 황금, 돌 (2) 신체, 정신 28 (1) 코 (2) 숨, 턱 (3) 혀 (4) 후련함 29 (1) 휴식, 깨달음 (2) 명언, 휴식 30 휴식

01 ⑤    02 ⑤    03 ①    04 ④    05 결별이 이룩하는 축  
 복, 나뭇잎이 벌레 먹어서 예쁘다.    06 ④    07 ②    08 ①, ③  
 09 ③    10 무능하고 부도덕한 양반의 모습과 양반을 선망의 대상으로  
 삼고 신분 상승을 노리는 부자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11 ⑤  
 12 ⑤    13 영혼의 성숙    14 ②    15 도둑놈    16 ③  
 17 ④    18 ②    19 ④    20 책을 읽으면 인간의  
 지극한 정신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인간만이 알고 있는 진정한 인간으로 나  
 아가는 통로이다. 인간다운 삶을 살고 드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길을 보여 준  
 다. 등    21 ④    22 ④    23 ②    24 ③    25 울며 겨  
 자 먹기

- 01 '먼 후일'에는 하강적 시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 02 원인과 결과의 형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 03 말하는 이는 꽃이 지고 열매가 맺는 자연 현상처럼 사랑과 이  
 별에 순응하고 있다. 임에 대한 원망은 나타나지 않는다.
- 04 꽃이 지는 모습을 표현해 주는 의태어는 '하롱하롱'이다.
- 05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은 꽃이 지고 열매를 맺듯 이별을 통  
 해 영혼의 성숙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이고, '나뭇잎이 벌레  
 먹어서 예쁘다'는 벌레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베풀 줄 아는  
 나뭇잎이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의미이다.
- 06 이 소설에서는 양반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으나, 바람직한 양  
 반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07 양반의 아내는 양반의 경제적 무능함을 비판하고 있다.
- 08 부자는 돈이 많아도 천한 대접을 받고 있어서 귀한 대접을 받  
 기 위해 양반 신분을 사려하고 있다. 돈이 많아도 신분에 따라  
 대접이 달랐다. 군수의 권위에 대한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 09 양반의 아내는 양반을 한심하게 생각하며 조롱하고 있다.
- 10 작가는 양반과 부자를 모두 비판하고 있다.
- 11 부자는 증서의 내용을 보고 양반의 부도덕한 모습이 도둑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여 양반 신분을 사는 것을 포기한 것  
 이다.
- 12 '잇었노라'는 반어가 나타난 표현으로 '결코 잇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13 말하는 이는 꽃이 피고 지는 것은 사랑과 이별에, 열매를 맺  
 는 것은 영혼의 성숙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14 이 글은 양반을 비판하는 풍자적 성격의 글이다.
- 15 작가는 양반의 횡포와 부도덕함을 '도둑놈'이라는 표현을 통  
 해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16 (라)에서 글쓴이가 1학기 특별 활동 시간에 읽은 것은 박지원  
 의 책이 전부였다고 하였다.
- 17 한문 문장을 번역한 예스러운 문체는 무협지와 고전의 공통  
 점이다.
- 18 앞 문장에 글쓴이가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은 바로 박지원  
 의 책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 19 마지막 문장은 책 읽기의 가치를 표현한 말이다.
- 20 (마)에서 읽기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
- 21 오랜 역사적 생활 체험을 통해 이루어진 인생의 교훈이나 경  
 계 등을 간결하게 표현한 짧은 글은 격언이나 명언이다.
- 22 아버지의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은 나타나지 않는다.
- 23 (마)에서 '적당한 휴식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다.
- 24 ㉠은 '몹시 숨이 차다'는 의미의 관용 표현으로 직설적인 표  
 현보다 의미를 더 생생하게 전달해 주고 있으므로 고칠 필요  
 가 없다.
- 25 '나'는 등산에 안 가려고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따라나서게  
 된 것으로, '울며 겨자 먹기'는 마지못해 아버지를 따라 나선  
 현지의 심정에 잘 어울린다.

FINAL TEST 2회

63~67쪽

- 01 ③    02 ①    03 ⑤    04 ④    05 잊었노라, '당신'을 결코 잊을 수 없다.    06 ④    07 ④    08 ②    09 ③
- 10 양반은 아무리 가난해도 늘 귀한 대접을 받고, 평민 계층은 아무리 잘 살아도 천한 대접을 받기 때문이다.    11 ⑤    12 ③    13 ⑤
- 14 소인, 환곡을 갚느라고 양반 신분을 부자에게 팔았으니, 더 이상 양반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5 ②, ④    16 ⑤    17 ②
- 18 ④    19 박지원의 책    20 책이 인간다운 삶을 살고 드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길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21 ①    22 ④
- 23 ②    24 적당한 휴식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 25 ②

- 01 3연에서 말하는 이는 '당신'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별의 상황'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라고 말하고 있다.
- 02 자연 현상과 인간의 삶을 연관 지어 '이별을 통한 영혼의 성숙'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
- 03 (나)에서는 꽃이 피고 지는 자연 현상을 인간 삶에서의 사랑과 이별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 04 ㉠에는 역설의 표현 방법이 사용되었다. '소리 없는 아우성'에도 역시 겉으로는 모순되거나 불합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삶의 진실을 담고 있는 역설의 표현 방법이 사용되었다. ㉢에는 반어법이 사용되었다.
- 05 반어가 나타난 부분은 '잊었노라'이다. 반어는 실제로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와 반대되는 말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잊었노라'의 속마음은 '당신'을 결코 잊을 수 없다는 것이다.
- 06 (라)에서 '시골에 묻혀 사는 양반도 모든 일을 제멋대로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 07 ㉠에는 비생산적이고 체면과 형식을 중시하는 양반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 08 ㉡에는 하는 일 없이 놀고먹기만 하는 양반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이에 해당하는 한자성어는 무위도식(無爲徒食)이다.
- 09 (다), (라)는 작가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양반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는 부분으로, 부자가 양반 신분을 포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 10 부자는 늘 천한 대접을 받는 것에 한이 맺혔기 때문에 양반 신분을 사려하고 있다.
- 11 (가)는 역설 및 다양한 표현 방법, (나)는 풍자, (다)는 반어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12 ①은 의인법, ④는 역설법으로 (가)에 나타나고, ②는 반어법으로 (다)에 나타난다. ⑤는 풍자로 (다)에 나타난다.
- 13 이 글에서는 '양반 매매 증서'의 내용을 통해 양반의 무능력함과 신분을 이용하여 횡포를 부리는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 14 양반은 환곡을 갚느라고 양반 신분을 부자에게 팔았다.
- 15 김 침지는 일을 마친 뒤 아내가 먹고 싶어 하던 설렁탕을 사 가지고 왔지만 아내는 이미 죽어 있는 상황으로, 설렁탕은 이런 상황의 비극성을 강조해 준다.
- 16 글쓴이의 삶이 바뀌게 된 경험이 중학교 때라는 것이지, 중학교 때의 경험이 삶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한 것은 아니다.
- 17 글쓴이는 (가)에서 되도록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 특별 활동반을 고른 것이 도서관이라고 말하고 있다.
- 18 글쓴이는 (마)에서 책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사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 19 박지원의 책을 읽은 것이 글쓴이가 소설가가 된 계기라고 말하고 있다.
- 20 ㉡의 앞 문장에 그 이유가 드러나 있다.
- 21 제목과 (마)의 '섬표'는 휴식을 빗대어 표현한 말이다.
- 22 반어는 나타나지 않는다.
- 23 ㉠은 속담, ㉡는 격언이나 명언, ㉢은 관용 표현에 대한 설명이다. ㉠, ㉡, ㉢은 속담, ㉣, ㉤는 명언, ㉥, ㉦, ㉧는 관용 표현이다.
- 24 (마)의 첫 문장에 아버지와 등산을 통해 적당한 휴식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였다.
- 25 개요를 작성하고 글에 활용할 표현을 떠올리는 단계는 '내용 마련하기' 단계이다.



- 01 ④    02 반어, 실제로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와 반대되는 말로 표현하는 방법    03 ④    04 ④    05 ③    06 ④    07 ④  
 08 ⑤    09 ⑤    10 권력을 이용하여 무위도식하는 양반의 모습, 신분을 이용하여 백성을 수탈하는 모습    11 ⑤    12 ⑤    13 ③  
 14 좋은 글과의 만남을 통해 삶의 가치관이나 진로가 달라질 수 있다. 책을 읽고 직업의 선택 등 일생이 바뀔 수 있다. 등    15 ③    16 ③  
 17 ③    18 ④    19 ③    20 '허를 차다'는 '마음이 언짢거나 유감의 뜻을 나타내다.'라는 관용 표현이다.    21 ④    22 ①  
 23 책을 읽으면서 정신세계가 한층 더 넓어지고 수준이 높아지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등    24 ①    25 ④

- 01 (가)는 반어를, (나)는 역설을 사용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02 '운수 좋은 날'은 김 침지에게 운수가 좋은 날 같았지만 아내가 죽은 불운한 날임을 볼 때 반어가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의 말하는 이도 '당신'을 잊을 수 없는 마음을 '잊었노라'라고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03 (가)에서 말하는 이는 떠난 '당신'을 절대로 잊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 04 부정적인 현상이나 모순을 다른 것에 빗대어 비판하는 것은 '풍자'이다.
- 05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에서는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반대로 표현하는 반어가 사용되었다.
- 06 양반 신분의 매매를 시도하는 부자에 대한 비판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소설에서는 조선 후기의 양반의 모습을 가장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 07 (가)에서 양반은 가난하여 환곡을 꾸어다 먹었는데, 그 빚이 엄청 많아졌다고 말하고 있다.
- 08 ① 돈이 있어야 의젓하게 양반 행세도 할 수 있음을 이르는 말 ② 모양이 어울리지 아니하고 하는 짓이 서투른 모양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③ 윗사람이나 권력자에게 실속 없이 덤벼서 화를 입지 말라고 경계하여 이르는 말 ④ 상놈이 힘들어 일하여 꾸려 가는 살림이 곧 양반의 양식이 된다는 뜻으로, 상놈이 힘겹게 살아가는 반면 양반은 그 덕에 호의호식하게 됨을 비난하여 이르는 말
- 09 부자는 양반이 되면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다기보다는 양반이 '도둑놈'처럼 부도덕한 존재라 양반이 되기를 포기한 것이다.
- 10 (라)에서는 종들이 시중을 들어주는 양반의 무위도식하는 모

습과,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며 횡포를 부리는 양반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 11 이 글은 경험을 바탕으로 쓴 수필이다.
- 12 (라)에서 고전을 읽으며 우리 조상이 쓴 것이라는 뿌듯함까지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 13 ㉠에 들어갈 말은 '무협지'이다.
- 14 글쓴이는 박지원의 책이 자신의 일생을 바꾸었다고 말하고 있다.
- 15 '하루에 한 편 시 쓰기'는 읽기를 생활화하기 위한 활동과는 거리가 멀다.
- 16 (다)는 아버지의 가르침이 나타난 문단이다.
- 17 하기가 매우 쉬운 것들을 표현하는 속담으로는 '누워서 떡 먹기', '식은 죽 먹기', '누운 소 타기', '땅 짚고 헤엄치기', '삶은 호박에 침 박기', '무른 땅에 말뚝 박기' 등이 있다. '뽕 먹고 알 먹기'는 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이상의 이익을 보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18 정상에 올라 상쾌한 느낌은 '상쾌하여 마음이나 기분이 거뜨하다.'는 의미를 지닌 '머리가 가볍다'와 의미가 통한다.
- 19 주제를 직접적으로 드러낼 필요는 없다.
- 20 '허를 차다'는 관용 표현이다. 관용 표현은 둘 이상의 단어가 합쳐져 원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뜻으로 굳어져서 쓰이는 표현이다.
- 21 글을 쓸 때에는 글의 내용과 의도에 맞게 다양한 표현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22 주인공 이름만 기억에 남는 것은 무협지라고 말하고 있다.
- 23 (나)의 본문에 '보약'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드러나 있다.
- 24 '허를 차다'는 관용 표현이다.
- 25 너무 서두르면 오히려 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의미의 '급히 먹는 밥이 목이 멘다.'가 적절하다.

